

# CVID 보다 낮은 단계 비핵화 명시...종전선언 언급 없어

### 김정은-트럼프 완전한 비핵화-체제 보장 4개항 합의문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과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모두 4개항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첫 만남에서부터 통근 결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일단 양 정상의 이번 합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 공동 선언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은 합의문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구체적 합의사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의 2개의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즉,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해온 CVID는 포함

###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사자 유해송환 등 합의 후속 실무회담서 비핵화 구체화

하지 않은 대신 '확고하고(firm), 흔들림 없는(unwavering)'이란 표현을 넣었다. 이는 CVID보다 낮은 수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에 부담감을 느껴 이를 약간 둔다 운했으며 이를 트럼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미협상 전문가들은 정상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 전 CVID 명시를 놓고 상당 기간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트럼프의 표정을 보며 CVID가 명시됐을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도 담기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종전 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시기도 합의문에 없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며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CVID가 없지 않다"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이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진행되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첫 만남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급 실무 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마-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양국은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후속 회담 등을 통해서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미연합훈련 중단”...트럼프 북미회담 후 폭탄 발언

### 주한미군 주둔도 경비 문제 거론하며 “돌아오게 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후 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 한반도 전계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팝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도 경비 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내는 문제는 현재 북미간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해 미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공약을 맞교환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곧바로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미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전선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 협정 체결 전 과도기적 대북 체제안전보장책의 하나로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 도 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비용 부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도 짧게 논의했다”며 김 위원장에게도 해결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직하고 직접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면서 “그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북미회담 성공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적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질은 그림자였다”라며 “낮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어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진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해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리선룡 싱가포르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고 그 길에 북한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 회담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았다. 이 답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트어와 함께 하세요! 쯤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다낭, 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벅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벅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쿠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여행: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OR USJ 3일(세미더블) 499,000원~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89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7월 28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899,000원~ ◆ 3박4일 1,198,000원~

여행방향 가족여행 무안 ↔ 돗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총18항차]**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총10항차]**

7월 20, 23, 26, 29 8월 1, 4, 7, 10, 13, 16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 국경수기요금은 별도 바랍니다.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사 탑승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인일 여행보험  
◆ 특석 2회, 리프트석 3회, 코코넛 오일(or 드라이 콩) & 코코넛 비누 1SET(통용) ◆ 필리핀 현지 공항세(750페소/인당) 포함  
◆ 여행다이빙 무료강습, 라푸라푸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맛사지  
◆ 시내관광(마젤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세 또는 막탄성당, 맥탄수리안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씨루프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합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쯤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텔)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특 가] 다낭 · 후에 · 호이안 4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6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광주 ↔ 제주도**

- ◆ 2박3일(주중) 299,000원~ ◆ 2박3일(주말) 37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왕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장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기입(예약상품 :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해외상품 10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부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 전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일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장비 1인 당 ◆ 예약시 계약서 필수 규정 및 할증료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인원,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어**